

[유안타증권 주식시황 Weekly]

주간: 知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반박 (7월 3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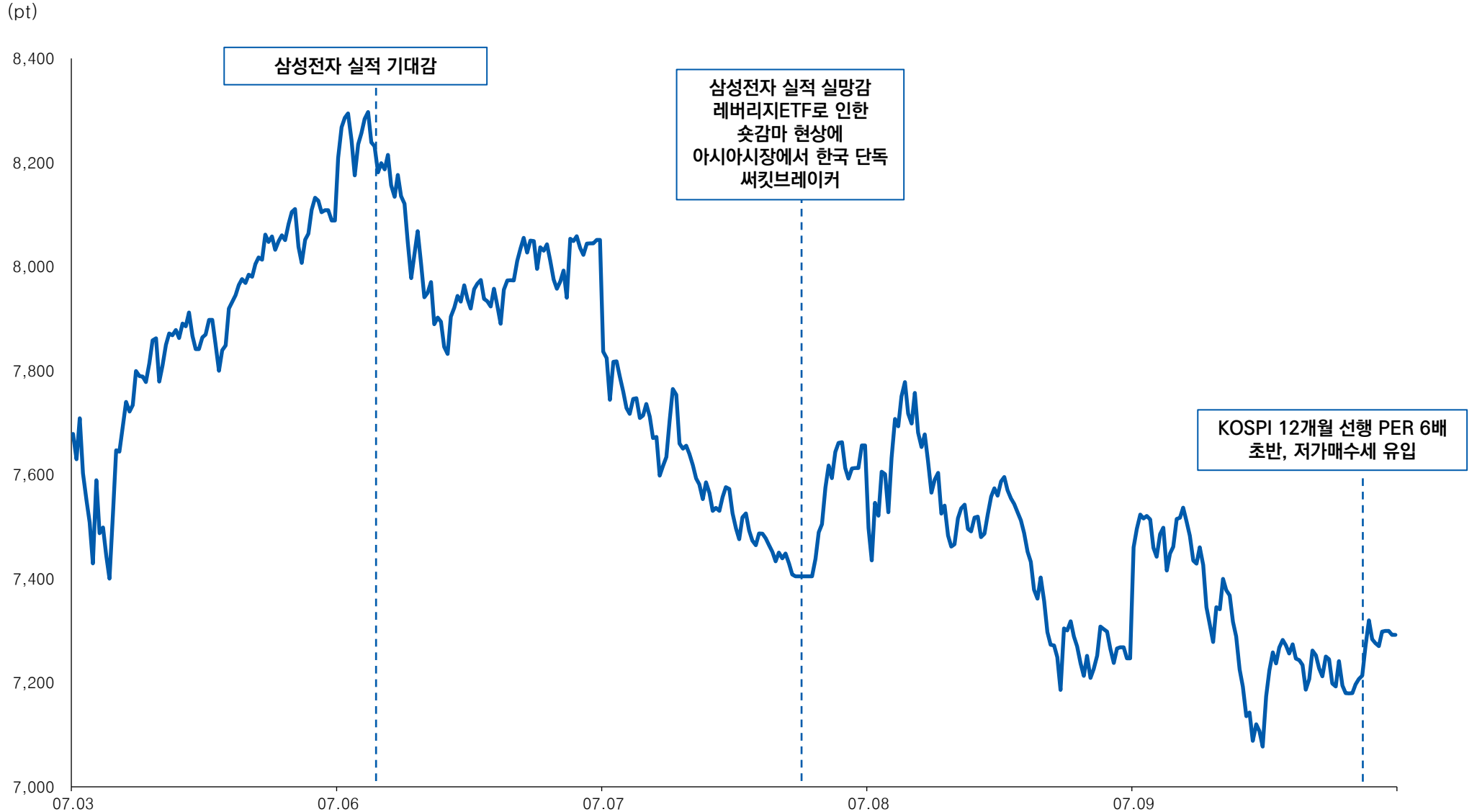
SUMMARY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반박 (7월 3주)

- 주간(7/3~7/9) KOSPI, KOSDAQ은 각각 4.7%, 8.4%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 실적 실망감과 반도체 고점론이 동시에 부각되며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은 실적 훼손보다 높아진 기대치, 레버리지 ETF 변동성, 저PER 밸류트랩 논쟁이 겹친 결과로 판단합니다.
- 이번 조정에도 26년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전주 대비 24.2조원 상향됐고, KOSDAQ도 0.8조원 상향됐습니다. 상향 조정은 IT·반도체·IT하드웨어에 집중됐고, 외국인 순매도액도 전주 12.3조원에서 3.7조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지수 급락 이후 12개월 선행 PER 6배 초반의 답밸류 구간에서 외국인의 저가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수급과 이익 모두 여전히 IT·반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 반도체 고점론 (저PER=고점)의 핵심은 현재 이익이 피크라는 우려입니다. 과거 메모리 사이클에서는 12개월 선행 EPS가 급등하며 PER가 낮아졌고, 이후 ASP 하락과 재고조정으로 EPS가 급격히 하향되며 주가가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EPS 급락을 정당화할 하이퍼스케일러 Capex 하향, HBM 장기계약 축소, 서버 DRAM 가격 둔화, 차세대 GPU 주문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최근 뉴스는 AI Capex 축소가 아니라 병목 자산 선점 경쟁을 보여줍니다. 메타는 2027년까지 14GW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고, 자체 AI 칩과 메모리·스토리지·광섬유 장기계약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2,500억달러 미국 투자 확대와 GlobalWafers 10년 웨이퍼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수요단과 공급단 모두 장기 병목 자산을 묶고 있는 구간입니다.
- 중국 메모리 리스크도 단기 가격 하락 요인보다 공급 부족의 방증에 가깝습니다. 중국 메모리가 글로벌 가격을 무너뜨리는 국면이라면 레거시 DRAM·NAND 가격이 약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 재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금융위기 수준까지 낮아지며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 업사이드 리스크가 훨씬 큰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EPS 급락 증거가 부재한 구간에서 저PER는 피크 이익 착시보다 AI 메모리 longer-duration earnings를 반영하지 못한 할인으로 판단합니다.

삼성전자 실적과 반도체 조점론 제기로 인한 지속되는 변동성 속 지수 급락

KOSPI 주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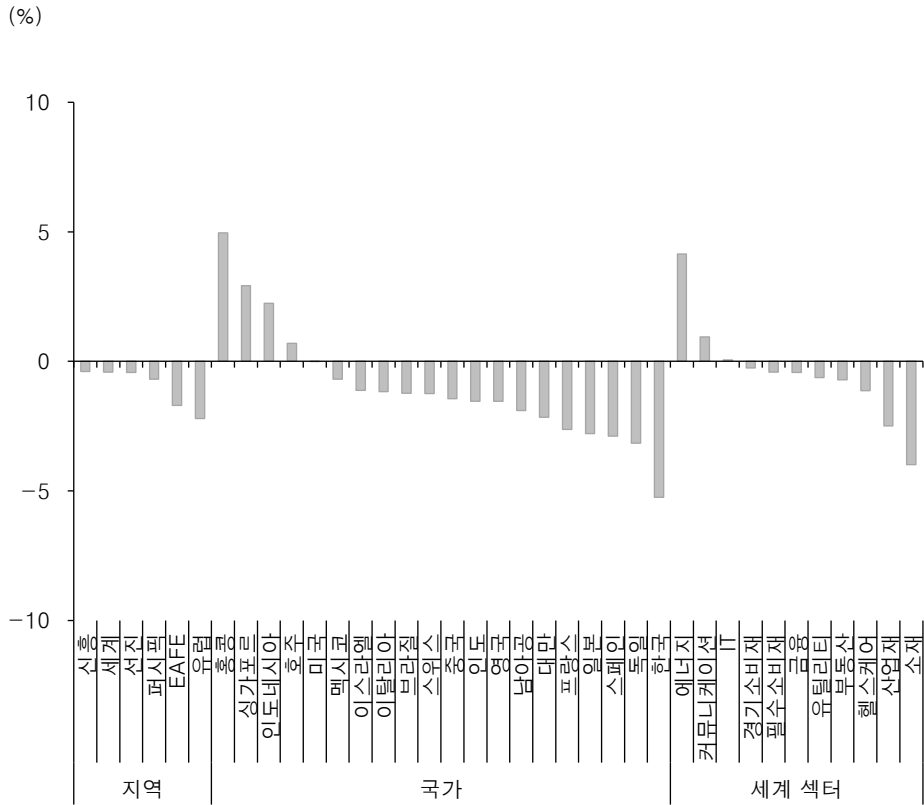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주식시장 Review : 실적 실망감과 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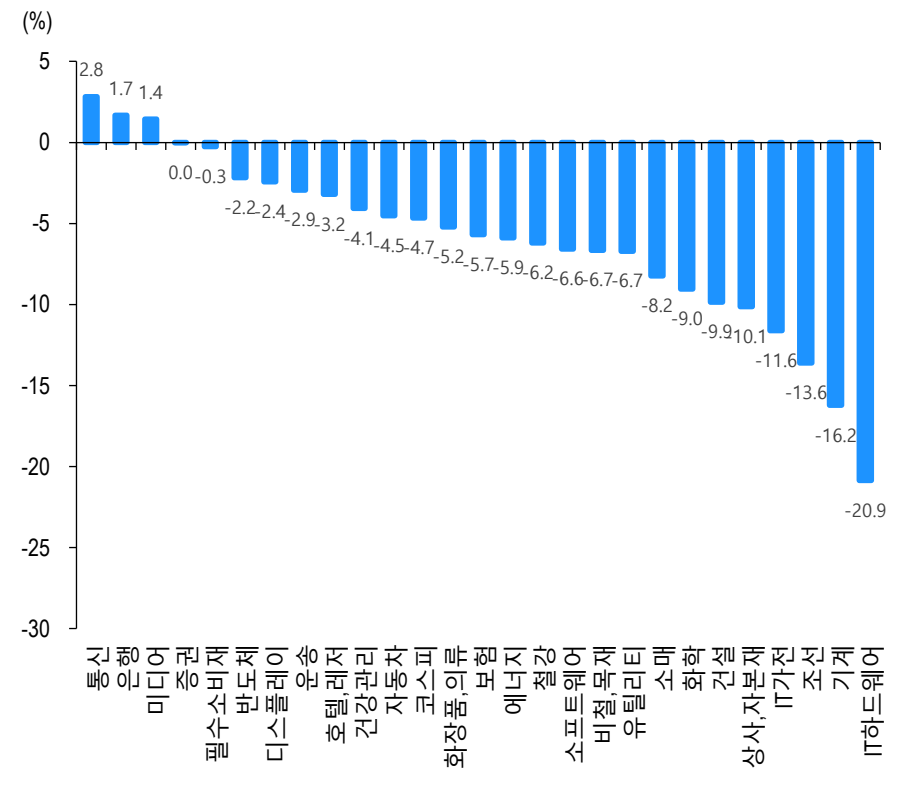
- 주간(7/3~7/9) KOSPI, KOSDAQ 각각 4.7%, 8.4% 하락.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투매 및 변동성 장세 속 대형주 급락. 개인투자자 순매수 여력 둔화된 가운데 연기금의 저가 매수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이 투매 야기
- 한국 주식시장 급락에도 대만, 일본, 신흥국 주식시장은 견조. 레버리지 ETF가 만든 변동성과 지나치게 비대해진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영향이라 판단

주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7월 8일 종가 기준

주간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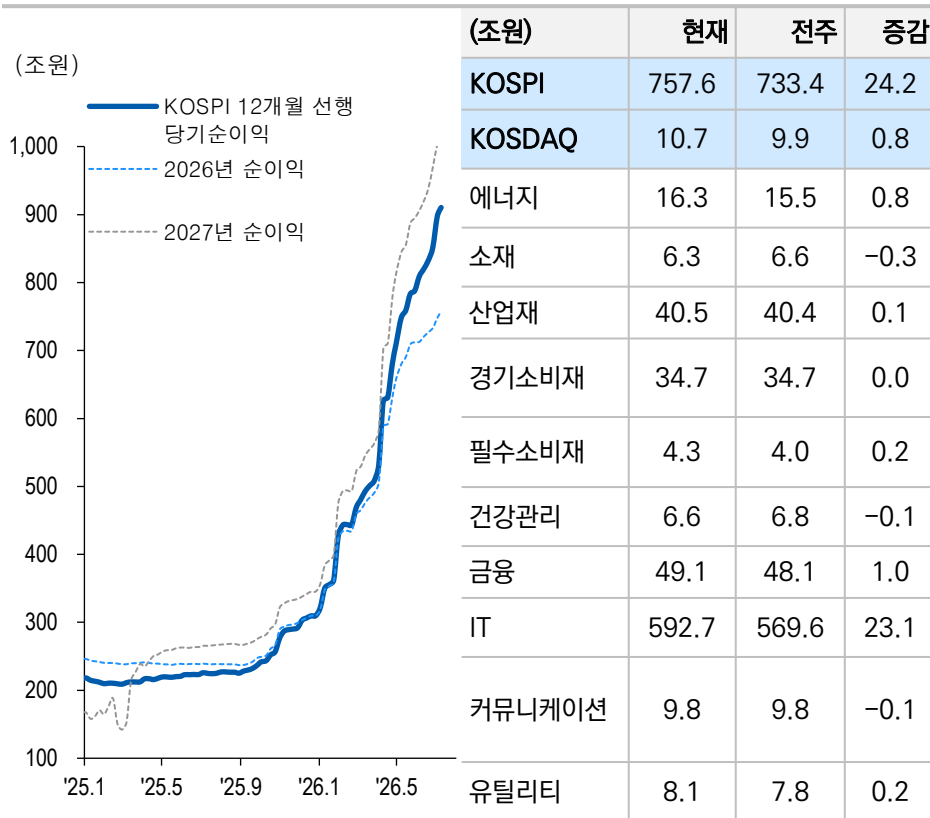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7월 9일 종가 기준

26년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상향 조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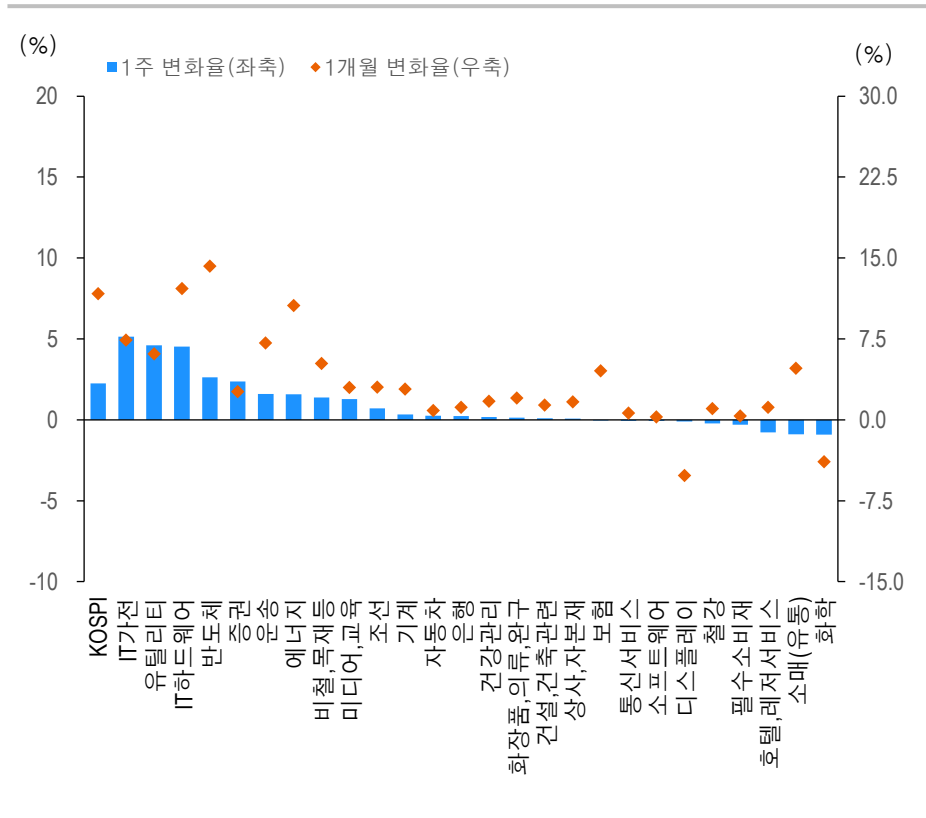
- KOSPI, KOSDAQ 이익추정치 상향 지속.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전주 대비 24.2조원 증가. KOSDAQ은 0.8조원
- IT 섹터 중심 이익 증가 지속. 변동성 속 저가 매수도 수급 주체별로 반도체로 결국 심화되는 이유 = 이익의 쏠림
- IT가전, 유틸리티, IT하드웨어, 반도체 업종 주간 EPS 상승 상위 업종. 화학, 소매, 호텔레저 업종 주간 EPS 하향 조정 업종

KOSPI, KOSDAQ 섹터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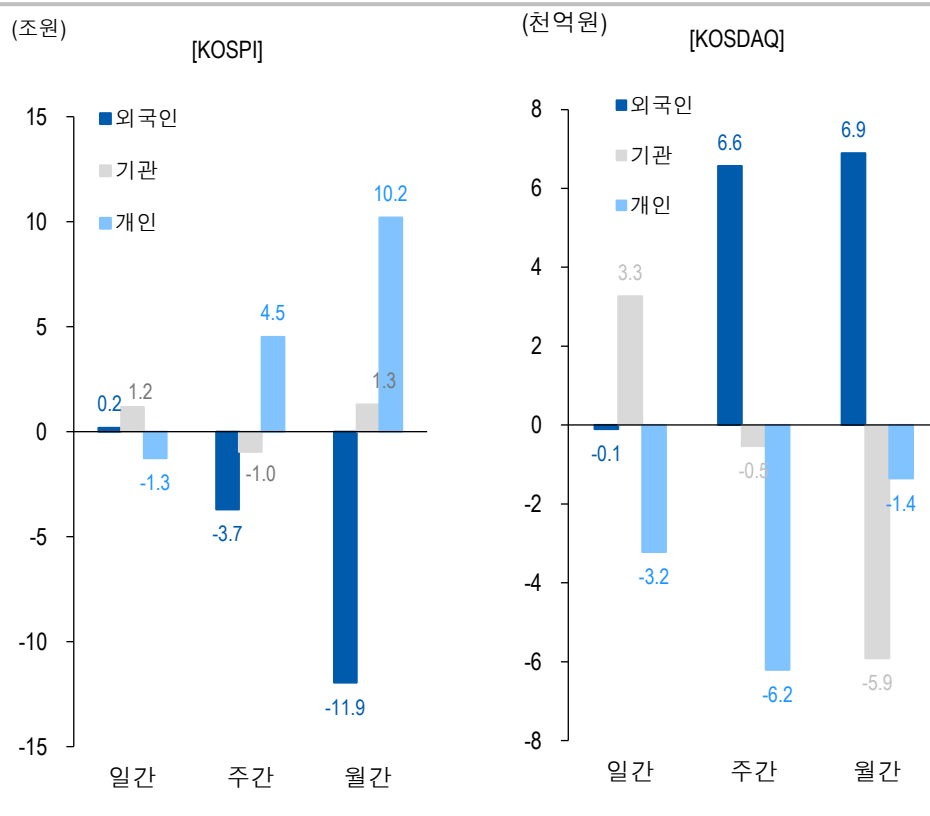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순매도액 대폭 축소

- 외국인 주간 전주 12.3조원 순매도에서 3.7조원 순매도로 대폭 축소 8일과 9일 2거래일 연속 순매수. 개인은 지수 낙폭 확대시 KOSDAQ 순매도 및 KOSPI로 자금 이동 지속하며 반도체 대형주 저가매수 지속
- 외국인 전주 순매수 나섰던 IT하드웨어 순매수 전환 7월 8,9일 순매수 당시 반도체 대형주 중심 순매수
- 지수 상승 견인 주체 개인투자자인 현 상황에서 개인의 KOSDAQ 순매도- KOSPI 순매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KOSDAQ 수급에 큰 악재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IT하드웨어	은행	반도체
	소프트웨어	자동차	IT하드웨어
	상사,자본재	에너지	조선
	건설,건축관련	건강관리	기계
	화학	증권	디스플레이
순매도 상위	보험	상사,자본재	건강관리
	건강관리	기계	건설,건축관련
	증권	조선	소프트웨어
	은행	IT하드웨어	에너지
	반도체	반도체	자동차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Market Calendar - 물가 지표 등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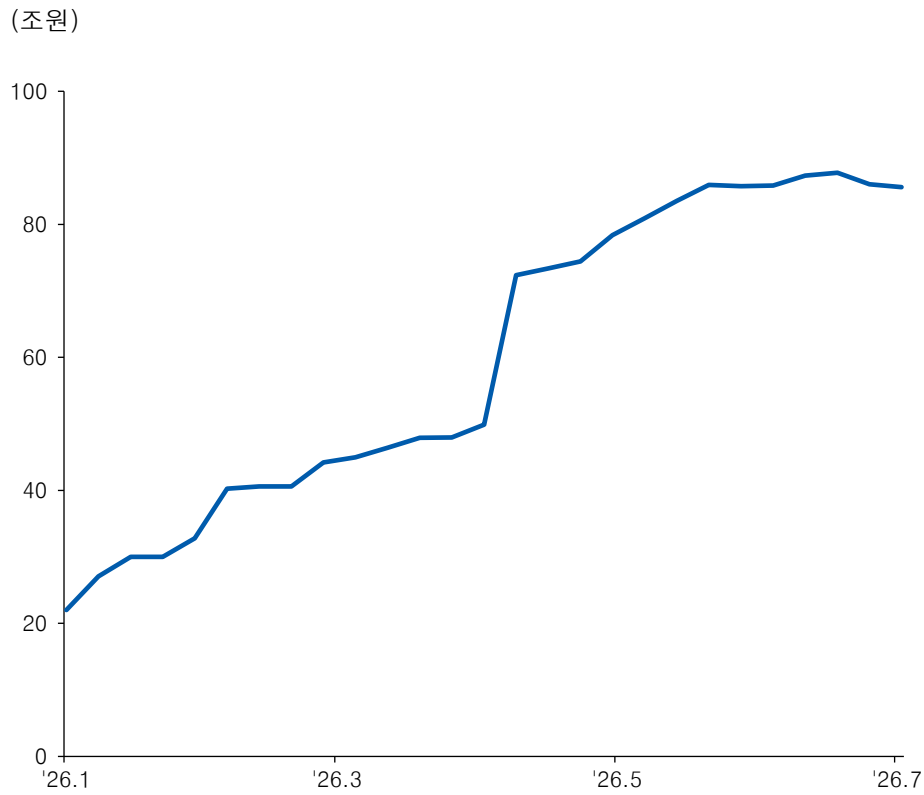
7월 3주차 주간 일정

	7월 13일(월)	7월 14일(화)	7월 15일(수)	7월 16일(목)	7월 17일(금)
경제지표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정치				한은 금통위	
기업		미국) JP모건, 골드만삭스, BoA, 씨티그룹, 웰스파고	ASML실적 미국) 모건스탠리, 블랙록, 존슨앤존슨	TSMC 실적 미국) 넷플릭스, 알코아, 유니아이티드헬스그룹	
주목 Point	현재 금리 인상 여부는 AI Capex 가이드선스와 함께 주식시장에 가장 중요한 두개의 축.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에 헤드라인 CPI, PPI 모두 지난 세 달간 급격한 상승. 이는 금리 인상 우려로 연결됨. 예상치 하회 물가 및 근원 물가 확인 시 주식시장에 상방압력으로 작용 가능				

이번주 시장 조정의 핵심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반도체 고점론

-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특별성과급 총당금 반영을 감안하면 실질 영업이익은 100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 엔비디아 최근 분기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글로벌 민간기업 최대 수준의 이익. 공식 컨센서스도 상회했지만 주가 급락
- 이는 실적 절대값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적 발표 직전 90조원 이상의 컨센서스가 제시됐고, 일부는 성과급 제외 100조원 안팎의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 메모리 고점론,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지속성 의구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쏠림과 외국인 매도까지 겹치며 장중 씨킷브레이커 발동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실적발표 당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순위	종목명	등락률 (%)	거래대금 (백만원)
1	SK하이닉스	-7.51	20,898,658
2	삼성전자	-8.49	17,164,632
3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2.56	4,573,415
4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	11.84	2,914,113
5	삼성전기	-11.43	2,681,741
6	KODEX 200	-4.93	2,677,633
7	KODEX 레버리지	-10.04	2,556,135
8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2.44	2,148,311
9	SK스퀘어	-11.97	2,023,330
10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13.71	1,958,972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고점론의 핵심은 반도체는 여전히 시클리컬 산업이며 현재가 EPS 고점 부근이라는 것

- 최근 반도체 고점론의 핵심은 실적 부진이 아니라 현재 실적이 피크일 수 있다는 우려. 2분기 사상 최대 이익에도 주가가 흔들린 이유는 스트릿 컨센을 하회한 실망감도 있지만 하반기 EPS 증가율 둔화, AI Capex 지속성 의구심, 중국 메모리 진입 리스크 등을 동시에 부각하며 제기된 메모리 조정론 영향
- 저 PER 논리도 같은 맥락. 현재 PER 4배 수준의 절대적으로 낮은 삼성전자 PER에도 불구하고, 과거 메모리 사이클에서 업황 후반부 12개월 선행 EPS가 급등하며 PER가 낮아졌지만, 이후 ASP 하락과 재고 조정이 시작되면 EPS가 빠르게 하향되며 주가 조정 발생. 즉, 낮은 PER는 저평가가 아닌 이익 착시라는 주장
- 현재 쟁점은 '반도체 싸다'가 아닌, 현재 EPS가 과거처럼 짧은 사이클 고점의 어닝 인지, AI 인프라 병목에 기반한 긴 시계열의 어닝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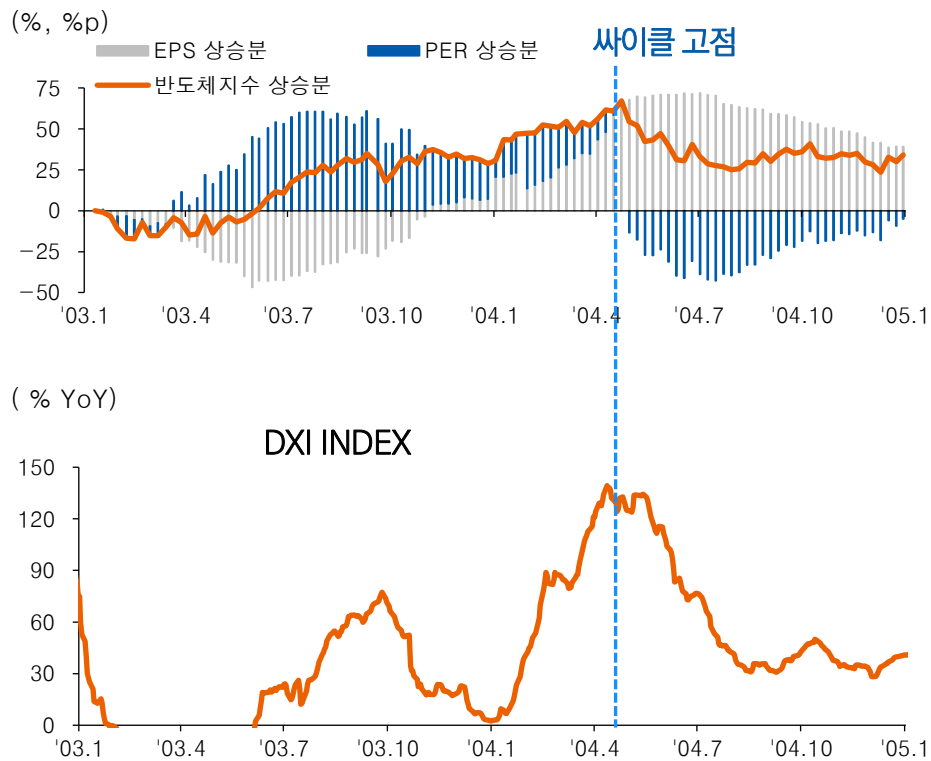
메모리 조정론 핵심 내용

순번	주장	근거
1	저PER는 싸다는 뜻이 아니라 사이클 고점 신호	씨클리컬은 실적이 후반부로 갈수록 EPS가 급등하고, 수요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점부터 저PER가 된다
2	EPS 성장률 둔화	하반기 삼성전자 EPS 성장률이 둔화되고,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기대치를 넘기 어렵다
3	AI CapEx 속도조절	하이퍼스케일러의 경쟁적 인프라 투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메타가 프론티어 모델을 포기하고 잉여 인프라를 외부 판매로 돌렸다
4	중국 메모리 리스크	AI 특수를 계기로 중국 업체들이 PC·모바일 OEM 공급망에 본격 진입하고, 다운사이클 후유증이 커질 수 있다
	결론	현재 저PER는 밸류트랩, 12MF EPS 하향과 함께 주가 조정 가능성

반도체 Cycle Case Study ① 2003년~2004년 (IT 버블 이후 회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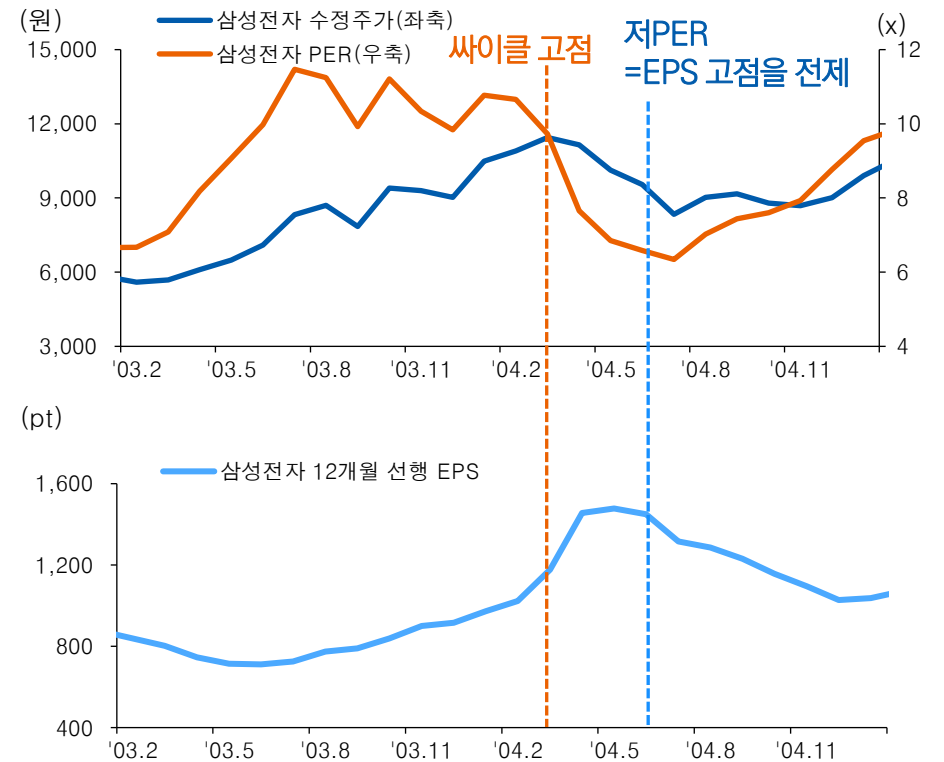
- 이익 추정치 상승 이유: 2001년~2002년 IT 버블 붕괴 이후 재고가 극단적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PC-휴대폰-가전 수요 회복되며 가동률 회복, ASP 반등, 재고 재축적이 이익추정치 상향 견인
- 이익 추정치 꺾인 이유: 2004년 하반기부터 피크 논쟁. 재고 축적 종료, Capex 후행 공급, ASP 둔화가 이익추정치 하향 요인

반도체 Cycle 당시 PER, EPS 증분 분해 및 메모리 가격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주가와 12개월 선행 PER,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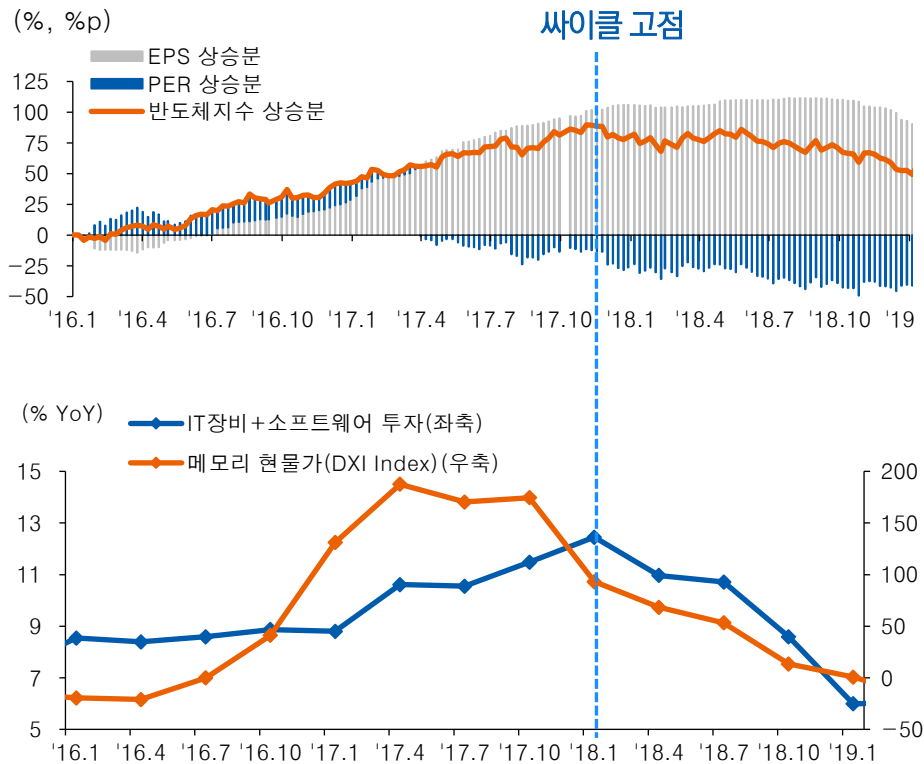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Cycle Case Study ② 2016년~2018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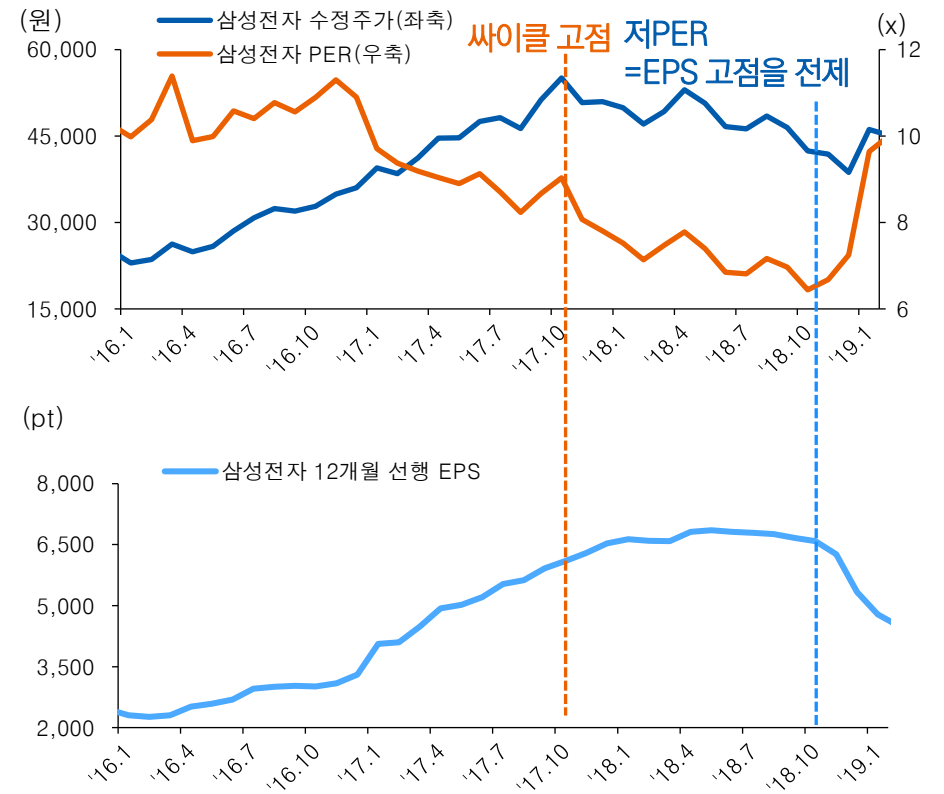
- 이익 추정치 상승 이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 서버 DRAM, 스마트폰 고용량화, 3D 낸드 전환 동시 작동. 매출 급증, ASP 급등, 고부가 믹스, 영업레버리지가 이익추정치 상향 견인
- 이익 추정치 꺾인 이유: 2018년 하반기부터 하이퍼스케일러의 재고 조정, DRAM 과잉 증산, 미중 무역갈등 겹치며 하향

반도체 Cycle 당시 PER, EPS 증분 분해 및 메모리 가격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주가와 12개월 선행 PER,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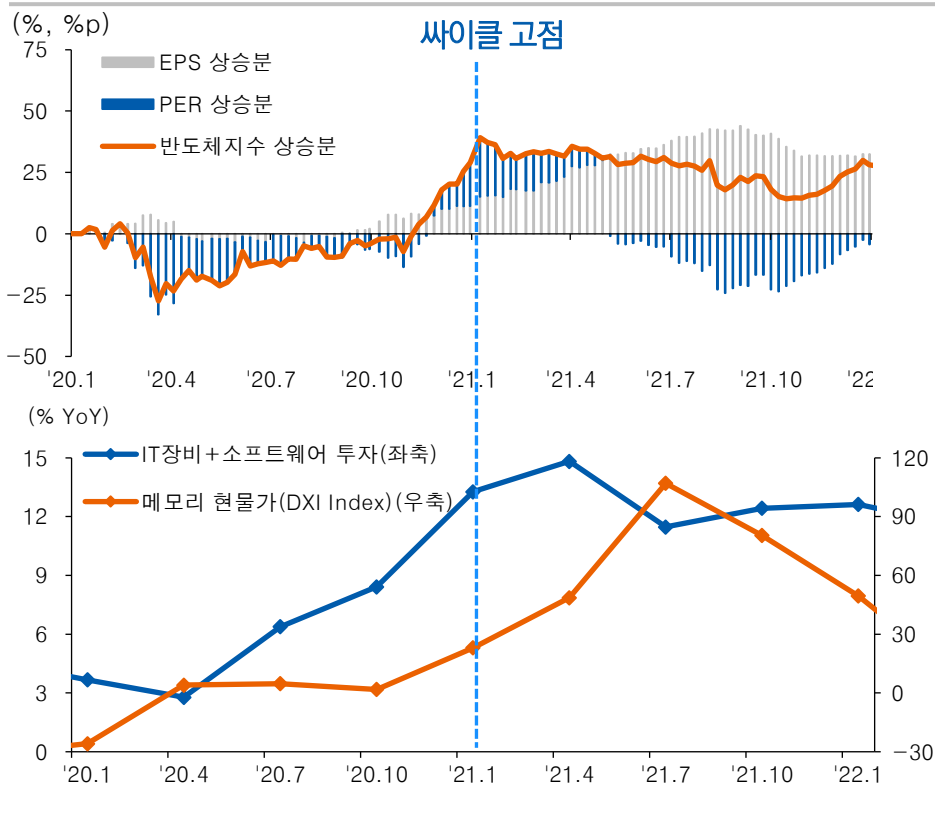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Cycle Case Study ③ 2020년~ 2021년 (팬데믹 쇼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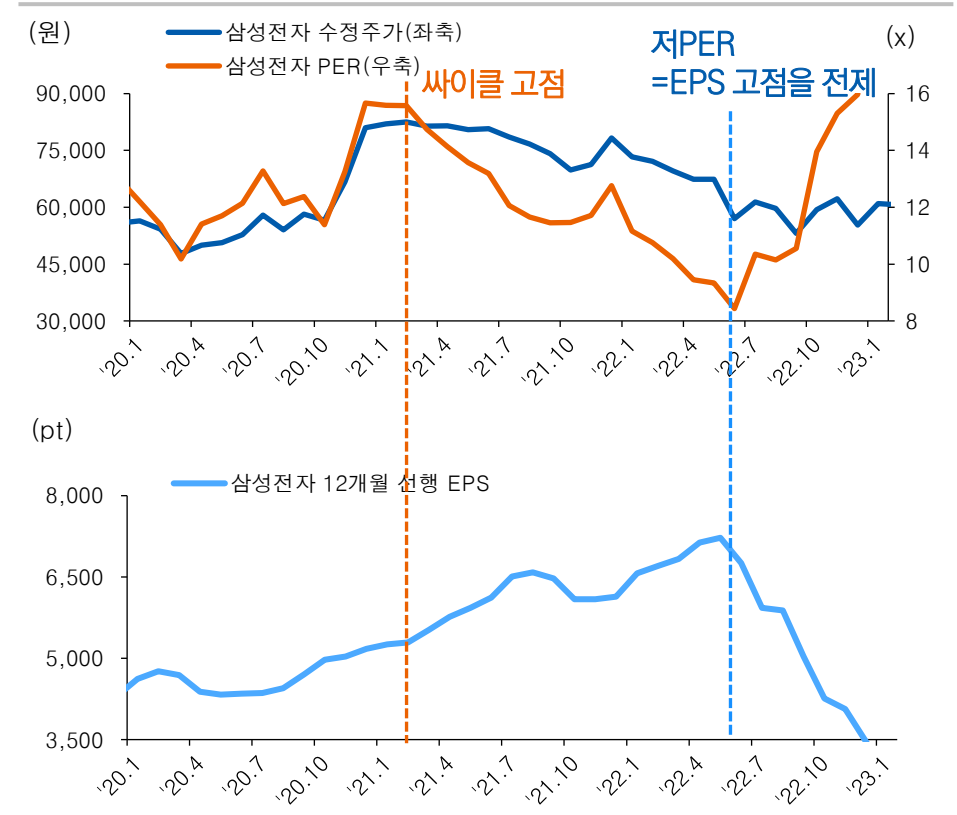
- 이익 추정치 상승 이유: PC, 태블릿, 서버, 게임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동시 급증. 팬데믹으로 공급망 병목까지 겹치며 전방위 쇼티지 발생. 가동률 상승, 가격 전가, 납기 장기화가 이익추정치 상향 견인
- 이익 추정치 꺾인 이유: 2022년부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세트수요 급감, 고객사 재고 과잉이 동시 발생

반도체 Cycle 당시 PER, EPS 증분 분해 및 메모리 가격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주가와 12개월 선행 PER,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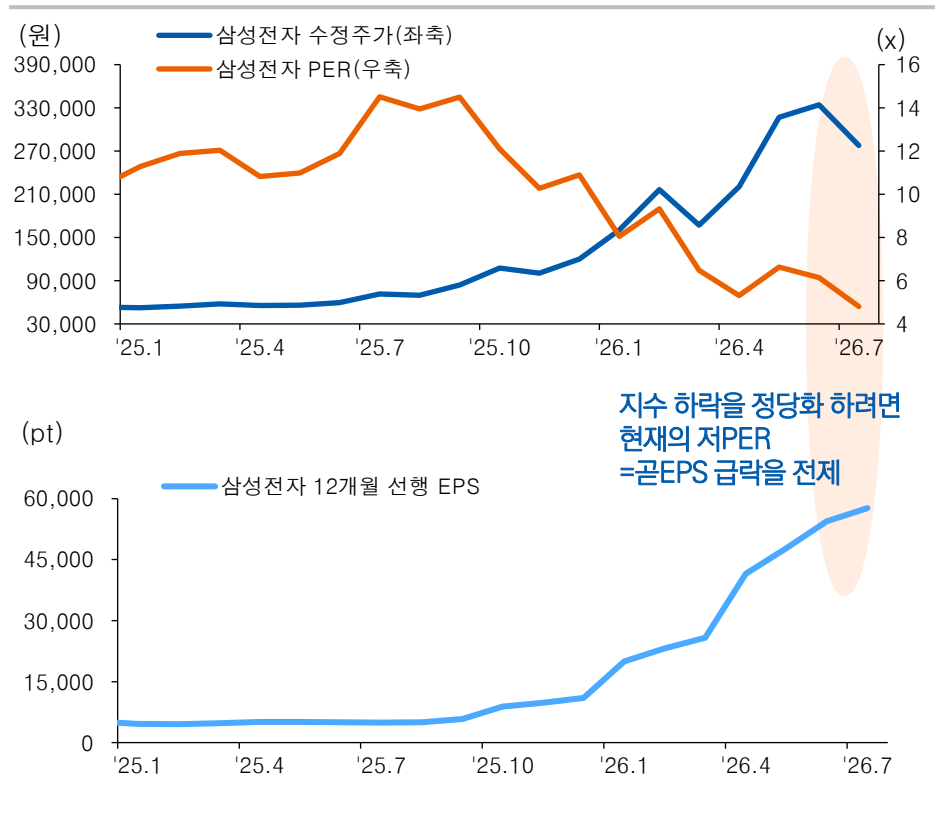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반도체 Cycle, 저 PER 밸류 트랩이라 정당화 할 EPS 급락의 증거가 없다

- 이상 과거 반도체 Cycle에서의 저PER 밸류트랩은 EPS의 하향 조정을 동반. 현재도 동일한 결론을 내려면 EPS 급락의 선행 조건이 확인 돼야 함. 메모리 수요 둔화를 판단하려면 하이퍼스케일러 Capex 가이던스 하향, HBM 장기공급계약 축소, 서버용 DRAM 가격 상승 둔화, 차세대 GPU 주문 감소가 확인돼야 하나 현재까지 모두 확인되고 있지 않음
- 즉 현재 필요한 질문은 “반도체 저 PER이니 팔아야 된다” 가 아닌 “AI Capex가 실제로 꺾였는가?”. 과거의 세트 수요 증가 경험은 현재 EPS 상승과 무관함.

삼성전자 주가와 12개월 선행 PER, EPS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메모리 수요 둔화 변수

확인 변수	현재 판단
하이퍼스케일러 Capex 가이던스 하향	확인 안 됨 (메타 1분기 실적 후 가이던스 상향, 최근 27년 컴퓨팅 용량 14GW로 확대)
HBM 장기공급계약 축소	확인 안 됨
서버 DRAM 가격 상승 둔화	확인 안 됨
차세대 GPU 주문 감소	확인 안 됨
AI 추론 수요 둔화	오히려 확대 가능성 우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반박 ① AI Capex를 줄이는 것은 커녕 병목 자산 선점 경쟁 중

- 메타와 마이크론의 최근 발표는 반도체 저PER 밸류트랩 논리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재료. 메타는 2027년까지 14GW 컴퓨팅 인프라 확보 및 자체 AI 칩 생산과 메모리, 스토리지, 광섬유 장기계약을 병행 중. 이는 AI Capex 축소와 정반대되는 수요단의 병목 자산 선점. 동시에 마이크론은 GlobalWafers와 10년 웨이퍼 공급 계약 체결
- 즉, 고객은 AI 인프라를, 메모리 업체는 핵심 소재를 장기 계약으로 묶고 있는 상황. 현재 관찰되는 것은 과거에 적용됐던 Peak EPS의 종료가 아니라, AI 메모리 밸류체인 전반의 **병목에 기반한 긴 시계열의 어닝임을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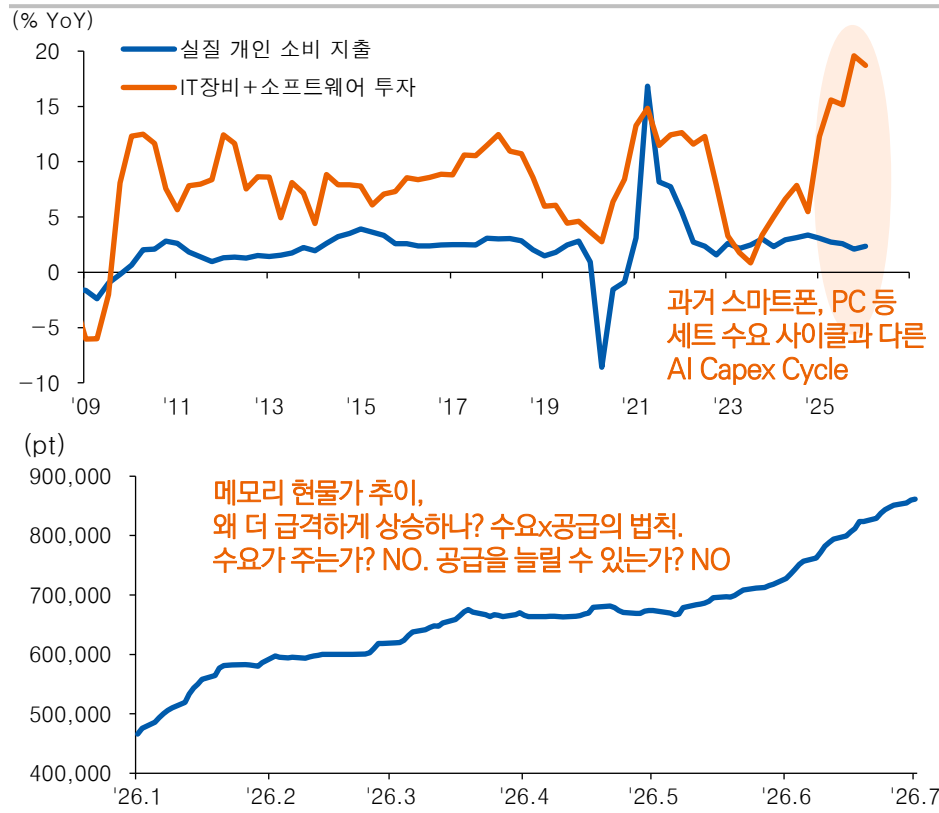
현지시각 7월 9일 발표된 가장 최신 뉴스조차 수요와 공급단이 동시에 장기 병목 자산을 선점중인 점을 증명

구분	메타 이슈	마이크론 이슈
출처	Reuters 단독 보도(7/9)	Micron 공식 보도자료(7/9)
핵심 내용	2026년 7GW 컴퓨팅 인프라 배치, 2027년 14GW로 확대. 자체 AI 칩 Iris 9월 생산 시작 예정. 메모리·플래시·스토리지·광섬유 장비 장기 다년 공급계약 체결	미국 투자 계획을 기존 2,0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최대 30억달러 전략 투자. 이 중 GlobalWafers 텍사스 300mm 원시 실리콘 웨이퍼 시설에 5억달러 금융 지원. 10년 장기 웨이퍼 공급계약 체결
밸류체인 위치	수요단: 하이퍼스케일러가 컴퓨팅·메모리·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선점	공급단: 메모리 업체가 원시 실리콘 웨이퍼 등 핵심 원재료 선점
의미	AI Capex 축소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산업화. 컴퓨팅이 남는다면 GW급 인프라를 두 배로 확대하고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할 유인 약함	단기 업황 대응이 아니라 장기 제조 로드맵 대응. 메모리 사이클이 곧 꺾인다면 10년 원재료 계약 체결 유인 약함
밸류트랩 반박 포인트	"AI 컴퓨팅 과잉 → 메모리 수요 둔화" 논리 약화. 외부 임대는 수요 부재가 아니라 Capex 회수 리스크를 낮추는 옵션	"저PER = 피크 EPS" 논리 약화. 공급업체도 장기 수요를 전제로 원재료 물량 선점 진행 중
EPS duration 함의	하이퍼스케일러의 단기 주문이 아니라 다년 인프라 조달 구조로 전환	메모리 업체의 단기 판매가 아니라 장기 생산계획·소재 확보 구조로 전환
한 줄 해석	메타는 AI 인프라 수요단 병목을 선점 중	마이크론은 AI 메모리 공급단 병목을 선점 중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반박 ② 세트 수요는 가격 상승의 원인이었던 적도 없지만 가격조차 재가속 중

- 이번 AI 사이클의 본질은 기업의 IT 장비, 소프트웨어 투자가 실적을 견인하는 B2B Capex 성격이 강함. 과거 소비 경기 주도 국면과 본질적으로 차별화. 민간 소비지출은 완만한 흐름에 머무는 반면, IT 장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는 2024년 이후 가파르게 반등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 반영
- 애초에 PC-스마트폰-가전 수요(B2C)가 메모리 가격 상승을 주도한 적이 없는데, 해당 수요 둔화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현재는 AI, HBM(B2B)이 고부가 생산능력 흡수한데다 B2C 수요까지 증가하며 레거시 가격 상승도 재가속 중. 그러나 최근 공급 제약은 지속되며 내년까지 부족

이번 Cycle은 과거 소비 증가 주도(세트 수요)와 달리 AI Capex 확대가 주도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사이클 구조 비교 (과거 밸류트랩 구조 Vs. 현재 사이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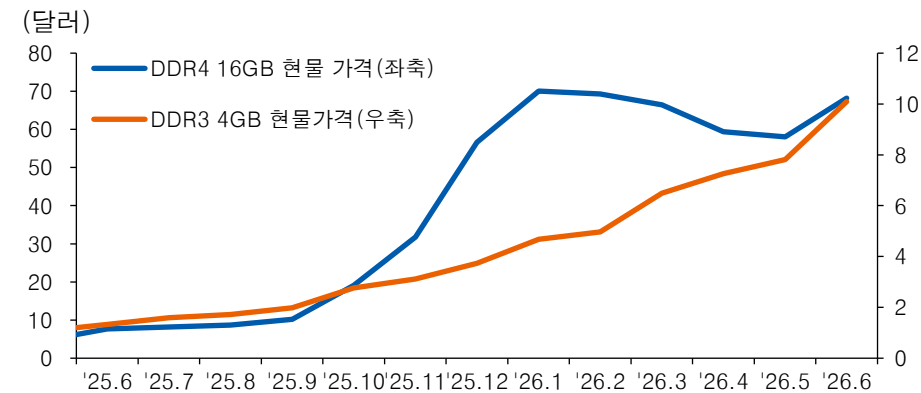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반박 ③ 중국은 리스크가 아닌 공급 부족의 증명

- 중국 메모리 진입이 글로벌 가격 하락 요인이라면, 중저가 레거시 DRAM, NAND 가격이 약해져야 함. 그러나 실제로 중저가 메모리 가격도 재상승 중. 중국 메모리 이슈는 공급 과잉보다 공급 부족의 방증. 자국내 수요를 따라가기도 버거운 상황. 단가와 가성비 측면에서도 애플의 노력은 큰 실효가 없음을 시사
- 정책상 현실화 hurdles도 높음. 2022년 이후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지속 강화 및 패권 경쟁 지속 중인 상황. 22년 애플-YMTC 사례 고려시 의회의 강력한 반발 가능성 상존. 중국 메모리 이슈는, 빅테크가 그 정도로 공급 부족이 절박하구나 로 해석해야 함

AI 패권 경쟁에서 안보를 포기하고 중국산을 쓸 수 있을까?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메모리 공급망이 쉽지 않은 이유 : 정책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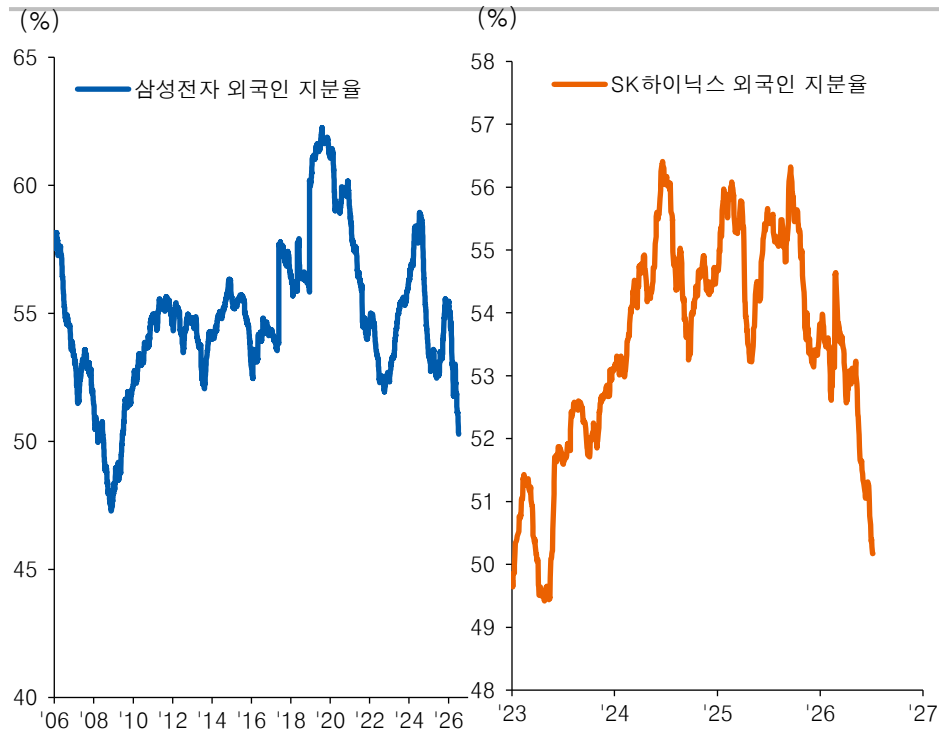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결론) 저 PER은 피크 이익 착시가 아닌 싸다는 신호다

- 과거 저PER 밸류트랩은 EPS의 상향 조정이 짧게 이뤄졌기에 해당됐다.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가 수요단의 병목을, 공급의 제약이 가격단의 상향 재가속을, 공급자들은 원재료 선점 경쟁을 보여주는 구간이다. 현재의 낮은 PER은 EPS의 정점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AI 인프라 병목에 기반한 긴 시계열의 어닝을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다.
- 결론적으로 쇼크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치와 포지션에서 발생했다. 공급이 단기간에 늘기 어렵고, AI Capex가 꺾인 증거가 없으며,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에 위치한 현 상황에서 공포에 동참할 이유는 약하다. 현 구간은 외국인 매도 강도 둔화와 7월 말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 후 Capex 가이드라인 확인, SK하이닉스 ADR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제도 개선 등 모멘텀을 기다리며 반도체 대형주의 분할 비중 확대 기회를 탐색하는 구간으로 판단한다.

외국인 순매수 여력 커진 반도체 대형주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PS 하향 조정을 감안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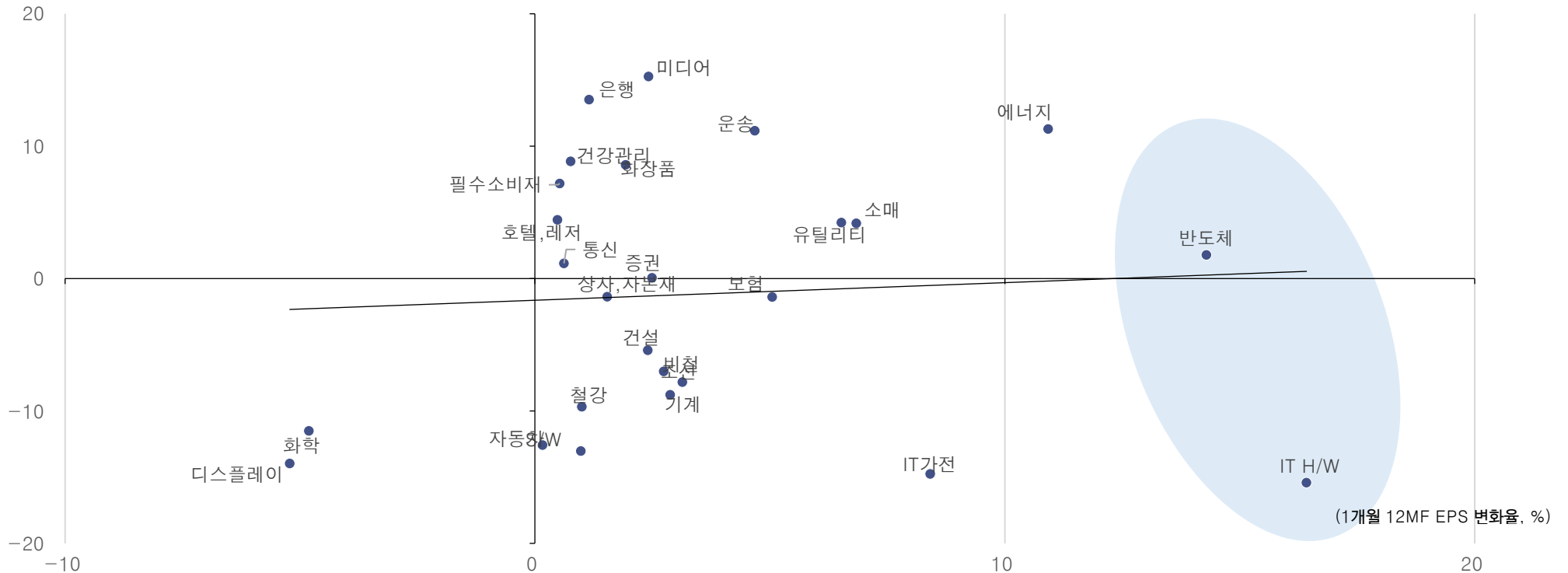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전략) 수급, 이익 모두 IT-반도체를 가리킨다

- 수급상 개인도 KOSPI가 급락하면 KOSDAQ과 KOSPI 대형주를 팔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매수, 외국인도 환율 변동성 감소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매수, 투신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매수하는 상황.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제도 개선 전까진 유지될 상황
- 이익 상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가장 많이 이뤄진 것 역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하향 조정 고려할 필요 적음을 자료 전체를 통해 언급
- 전략은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 300만원 갈 때 ‘빠지면 산다’고 다짐했던 SK하이닉스를 펀더멘털 문제 없이 급락한 현 시점에서 매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존재.

이익 체력 가장 확실한데 주가도 많이 빠진 업종이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수급 주체일 때 순매수 중인 상황

(1개월 상대수익률, %p)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이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 知